

본전도 못 건지는 광주 업무용 건물

불황·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 투자 수익률 '0' 공실률 전국 최고... 자금난·건물값 하락 '이중고'

장기적인 불황과 지방 부동산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광주지역 업무용건물의 투자수익률이 '0(제로)'로 추락했다.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익률로 건물을 임대해줬지만, 실질적인 수익은 단 한푼도 없는 셈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동구 총장로 등 구도심의 건물 공실률이 매년 급증세를 보이면서 상당수 건물 소유자들이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자금난과 건물가 격 추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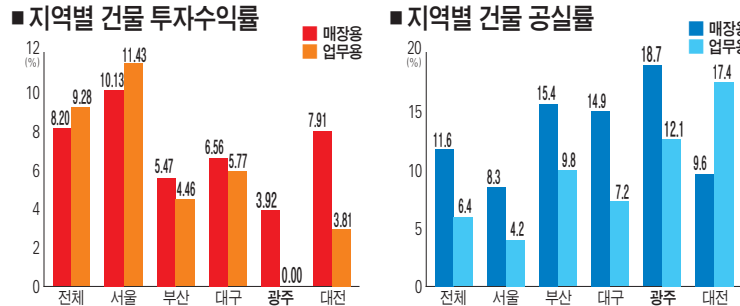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업무용건물의 투자수익률은 '0.00%', 즉 '제로'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0.48%에 비해 수익성이 더욱 나빠진 것으로, 지난해 상당수 건물

주들이 '본전'도 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 업무용건물의 수익률이 나빠진 것은 지난해 총장로와 금남로 등 구도심의 건물가격이 1.77% 하락했기 때문이다.

광주는 또 해당 지역의 상권 활성화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매장용건물의 수익률도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광주 매장용건물의 투자수익률은 3.92%로, 전국 평균(8.2%)의 절반을 밑돌고 있다.

이처럼 광주의 건물 수익성이 낮은 것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건물가격 및 임대료 하락, 공실률 증가 등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광주 업무용건물의 공실률은 12.1%로, 전국 평균(6.45%)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특히 광주는 지난해 매장용건물의 공실률이 18.7%로 치솟았다. 이는 2006년(15.6%)에 비해 3.1% 늘어난 것으로, 1년새 지역 상권이 더욱 위축됐음을 의미한다.

총장로의 경우 2005년 도청 이전 이후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상가 공실률이 사상 최고 수준인 18.3%로 치솟았다. 또 첨단지구(49.1%)와 전남대 인근(30.8%), 일곡지



光銀-中 공상은행 제휴 '위안화 송금서비스'

광주은행(은행장 정태석)은 중국 위안화 송금 수요 증가에 발맞춰 중국공상은행(ICBC)과 제휴를 맺고 '위안화 직접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중국내 수취인이 별도의 환전 및 외국환 신고절차 없이 위안화를 수취할 수 있는 것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환리스크가 없다. 또 통상 2~3일이 소요되던 송금기간이 1~2일로 단축되고 추가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점도 특징이다.

광주은행은 중국에 주기적으로 송금을 하는 중국인 근로자나 교포, 중국 친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개인 고객, 중국에 체류중인 한국인 근로자 또는 유학생 등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연간 미화 5만불까지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송금거래만 가능하며, 환율은 중국 공상은행에서 적용하는 미화(USD)의 위안화(CNY) 전환환율을 적용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현대·기아차-협력사 상생 다짐

定總... 6개 부문 시상

현대·기아자동차(대표 정몽구 회장)는 11~12일 제주도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전국 400여개 협력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2007년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와 협력사간의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협력과 자동차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상생협력 우수 협력사와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사진)

1천만원의 부상이 지급된 올해의 협력사 대상에는 연료탱크, 서스펜션 부품전문업체인 동희산업(대표 이동호 회장)이 선정됐

다. 각 부문별 협력사상에는 품질 부문에 성우하이텍(대표 이명근 회장)·유라코퍼레이션(대표 엄병운 회장)이 공동 수상하는 등 총 6개 부문에 10개사가 선정됐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자동차 산업 동향과 미래기술 전망 ▲글로벌 경영환경과 구매 대응전략 ▲경영혁신과 변화관리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이번 정기총회를 비롯해 'R&D 협력사 Tech-Day', 'R&D 심포지엄'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협력사 육성, 부품 및 기술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쌀 판매사업 등 전 부문 상위권 농협 전남본부 전국 2위 차지

중앙회, 16개 지역본부 평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사진)는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2007년 종합평가에서 강원 본부에 이어 전국 16개 지역본부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전남농협은 사업·비사업·교육 지원사업 등 모든 부문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지난해 연초부터 쌀 1포당 2원권을 더 받아 1천억원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키자는 '1·2·1000운동'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1·2·1000운동'의 대대적 전개로 전국 소비자단체가 주관한 전국 12대 우수브랜드쌀 평가결과 5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되는 등 전남쌀의 가치가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날기도 했다.

특히 경제사업의 경우 유통기반 조성부문 1위와 공제사업 전국 6연패를 달성, 고객관리 3연패, 퇴직연금 2연패, 지도사업 전국 1위 달성 등 고른 성적을 거뒀다.



또 영업점 평가에서도 전남 지역 35개 사무소 중 8개 (담양군·광양시·순천시·보성군·영광군·복소천·동명동·신목포)가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상관에 15개 사무소(43%)가 선정됐다.

중앙회는 시간외 전국 최우수 사무소로, 영광군은 군단위 최우수 사무소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광주세관 '청렴세관' 선포식.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지난 11일 관세사와 광주세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관 회의실에서 청렴세관 선포식을 가졌다. (광주세관 제공)

지방기업 신규 투자·고용 창출엔 인건비 최고 90%까지 지원

올해부터 지방에 있는 기업이 새로 투자해 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신규 고용인력의 인건비 상당분을 지원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3일 지방기업의 신규 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의 지원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매출 최고 50만원까지 최장 2년까지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일반지역은 국비 지원비율이 80%, 낙후지역은 90%이며 나머지

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돼 있다.

지원대상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으로 고용인력 300명 이상 제조분야 대기업의 경우 토지매입비를 뺀 투자액이 20억원 이상, 신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제조분야 중소기업(50~299명)과 소기업(1~49명)은 각각 3억원과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해 1명 이상의 인력을 새로 고용해야 한다.

/연협뉴스

비수도권 창업 中企 178억 지원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올해 모두 178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1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공장건축과 설비투자 금액이 5억원 이상(일대공장 3억원 이상)이면서 직원 5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중소기업은 투

자금액의 10%를 10억원 한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받는다. 해당 중소기업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보조금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3년간 균등 분할해 지급된다.

/연협뉴스

'카스 챌린지' 참가자 시상 오비맥주

오비맥주(대표 이호림, www.cass.co.kr)는 지난 11일 서울 분사에서 7개월간 진행된 '카스 챌린지(Cass Challenge)'의 참가팀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사진)

지난 5월 광주·부산·광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5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30개팀 120명의 카스 챌



린저들은 전문적인 자기개발 프로그램과 카스 브랜드사 준비 훈련과정을 거쳐 총 7개월간의 본격적인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영광 법성포 준비

구정맞이 직송판매

명품쌀로 남이만족의 특별한 맛으로, 감칠맛 가득한 한겨레에서, 귀가갠이 보태도꼭 제철을 즐기세요.

정미 10kg (180,000원)	정미 5kg (100,000원)
정미 10kg (75,000원)	정미 5kg (50,000원)

전화상 주문서 전국 어디서든 배송해 드립니다.

☎ 법성포상금비 061)356-7600

베이징 카오야

북경 동오미구이

중국 특산물 전문점. 베이징 카오야는 1996년 베이징에서 창업된 이래, 중국 특산물 전문점으로서, 전국 각지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경 오리구이 1마리 (15,000원)	북경 오리구이 1마리 (15,000원)
북경 오리구이 1마리 (15,000원)	북경 오리구이 1마리 (15,000원)

☎ 베이징 카오야 061)356-7600